

국내외 유망 창업기업 부산으로... 아시아 창업도시 '신호탄'

내달 22일 'FLY ASIA 2022' 개최
▶ 창업 선도도시 네트워크 형성
도시 간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

부산시는 부산창업청설립추진단과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아시아 창업 도시 부산'의 신호탄이 될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2'를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시는 '부산에서 아시아의 창업기업이 함께 날아오른다'라는 염원을 담아 'FLY ASIA'의 슬로건을 'Connect Asia, Fly to the World'로 정하고, '아시아 도시의 연결과 도약 in 부산'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창업 엑스포 준비에 한창이다.

또한, 부산에서 아시아 창업 행사를 마련하여 국내외 유망 창업기업을 부산으로 유입하고, 아시아의 창업생태계를 부산이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주요 도시 시장과의 창업정책 간담회와 공동 안전 대책을 위한 'FLY ASIA 씨앗' ▲아시아 창업분야 대표 인사들의 교류의 장인 '아시아 리더스 포럼' ▲아시아 투자분야 대표 인사들 교류의 장인 '인베스트 리더스 포럼' ▲글로벌

저명인사의 기조연설과 창업생태계의 주요 트렌드 세션별 강연인 '콘퍼런스' ▲아시아 우수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를 위한 'FLY ASIA 어워드' ▲국내·외 시리즈A 스타트업 피칭 무대인 'FLY ASIA 쇼케이스' ▲부울경 우수 스타트업 릴레이 피칭 'FLY IR 릴레이'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1:1 미팅' ▲국내 대기업의 프로그램 소개 및 전시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FLY ASIA 어워드'는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시상하며 투자연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9일 오후 3시부터 10월 14일 오후 6시까지 참가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10월 21일까지 심사를 거쳐 50개의

창업기업을 선정한 후 본 행사 기간 중에 최종 결선을 진행할 예정으로, 결선에 진출한 최종 6개 기업에 총 18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내·외 투자사 매칭을 통해 후속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아시아 최대의 창업축제로 만들어 창업 선도 도시 간 교류하고 투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산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아시아 최대의 창업축제로 만들어 창업 선도 도시 간 교류하고 투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산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아시아 최대의 창업축제로 만들어 창업 선도 도시 간 교류하고 투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산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릉군, '경북 식품박람회' 참가

울릉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2 경상북도 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2022 경상북도 식품박람회는 '경북식품, 화려한 기술의 콜라보'를 주제로 로봇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푸드테크관, 테이블 웨어, 경북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등 전시행사 및 부대행사를 운영하고, GB-라이브관을 운영하여 경상북도 내 제조기업의 식품들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해남군·진도군 울돌목에서 명랑대첩축제 출정식 퍼레이드.

/해남군

명랑대첩축제 '울돌목 페스타' 성황리

역대 최대 인파 몰려

해남군과 진도군, 울돌목 일원에서 열린 명랑대첩축제 '2022 울돌목 페스타'가 사흘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가을축제의 재개를 알렸다.

특히 올해 축제는 코로나19이후 3년만에 대면행사로 치러지면서 관광객들의 높은 기대감속에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려 가을 축제의 진수를 만끽했다. 전라남도의 집계 따르면 올해 명랑대첩축제에는 15만여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 개막식을 비롯해 드론쇼, 트로트쇼 등 볼거리와 함께 명랑해상케이블카에서 야간 연장운행을 하고, 미디어아트와 조명을 이용한 설치작품 등이 조성되면서 늦은 밤시간까지 축제장을 찾는 행렬이 이어졌다.

첫째날인 9월 30일에는 개막행사로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서 진도대교를 통과해 진도 녹진관광까지 이어지는 해남군·진도군의 읍면민 출정 퍼레이드와 출정식, 미디어 해전과 드론쇼, 불꽃쇼가 울돌목 해상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화순군, 민선 8기 '비전 선포행사' 연다

전략·미래 비전 소개

화순군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군민행복시대를 여는 화순비전 선포 행사를 연다.

화순군은 10월 7일 오후 2시 화순읍 하나문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민선 8기 '화순 비전 선포 행사'를 열고 군정목표인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할 전략과 미래 비전을 밝힌다.

비전 선포 행사에는 구북규 화순군수, 하성동 화순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 이장단, 주민 등 약 700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영상을 통해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전국 최초 팀장의 민원장구 전면 배치 등 8기 출범 100일 성과를 소개한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2부에서 ▲남도관광 1번지 화순 ▲소득 높은 부자농촌 화순 ▲백신·바이오 등 신성장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SOC 확충, 정주여건 개선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화순 5개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4대 국책사업 대응 TF' 출범

경남도 지역 혁신 계기 발판

경상남도는 지난 30일 도정회의실에서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대형 국책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4대 국책사업 전제 대응 특별팀(TF)' 출범회의를 가졌다.

경남도는 그동안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진행중인 연구를 경남도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 혁신의 계기로 삼고자 특별팀을 운영하게 됐다.

총괄 특별팀은 도시·교통·물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3개 분야에 관련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현업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 7명이 참여하고, 경남연구원 박사 5명, 도국장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분야별 실무특별팀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12월까지 1단계로 운영하여 4대 국책사업에 대한 분야별 대응전략을 도출한 후 구체화를 위해 2단계 특별팀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장병호 기자



HJ중공업 임직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부산 영도구 중리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줍는 '플로킹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HJ중공업, '부산 환경보호 플로깅' 성료

올해 창립 85주년 맞아

부산 소재 HJ중공업은 29일 부산 영도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봉래산 플로깅 캠페인과 함께 태풍 피해 지역인 영도 중리해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HJ중공업은 1937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조선소로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85주년을 맞으며 최초 설립지인 부산 영도에서 지금까지 조선업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다.

HJ중공업은 청정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부산의 보물'이라 불리는 영도의 자연과 생태 환경을 보호

하자는 취지를 담아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우프(Plocka upp)'와 걷기를 뜻하는 영단어 '워킹(Walking)'의 합성어다. 산책이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건강과 자연을 동시에 챙기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플로깅 캠페인은 HJ중공업 본사가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 영도구 봉래산에서부터 중리 해변을 아우르는 숲길과 해안을 따라 진행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김해시

'부울경 제1회 스마트도시' 선정

김해시가 부울경 제1회 스마트도시로 정부 인정을 받았다.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24개 도시가 참여해 2개월 동안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김해시를 포함해 9개 도시가 선정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성과를 3대 분야 56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김해(경남)=장병호 기자

건보 광주전라제주본부

출산지원제도 안내 책자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분만시설 이용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관내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종합안내 책자 '베베꾸러미'를 제작·배포한다.

'베베꾸러미' 종합안내 책자는 전라남도 함평군, 보성군, 전라북도 무주군 거주 임산부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거주지 맞춤형 지원제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다.

/전남=양수영 기자

목포시, 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73대의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50만원, 초소형 791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